

## 자치구탐방

- 「인프라가 튼튼하여 잘사는 관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김용중(관악구청 생활복지국장)

# 「인프라가 튼튼하여 잘사는 관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김용중  
관악구청 생활복지국장  
kyj@gwanak.go.kr

## 추진배경 및 목적

### ○ 추진배경

- 관악산의 북서면에 자리하고 있는 관악구는 과천, 안양 등 수도권 남부도시로부터 서울유입의 관문적 위치와 영등포 부도심 및 영동부 도심을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 중심부를 남부순환도로와 지하철 2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함
- 인구 220,879 세대 530,020명, 면적 29.57km<sup>2</sup>(서울시전체 면적의 4.9%) 중 일반준주거지역 52%, 녹지지역 46.5%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은 1.5%에 불과하여 도시계획 기반이 매우 취약함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착공, 난곡 경전철 개통 등 교통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면 위성도시 유동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리고 신림 뉴타운사업 착공,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진을 통한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남부순환로, 관악로 등 대로변을 중심구역으로 한 상업지역의 대폭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목적

- 현 시점에서 보다 다양화되어 가는 구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복잡화되어 가는 도시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선진 자치단체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성 있음
-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 경쟁에서 지방간·도시간 경쟁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역경제를 위한 다양한 시책 도입이 필요함
- 따라서 관악구는 민선4기 공약사항인 ‘기업하기 좋고’, ‘잘사는 구’ 를 만들기 위해 관악발전의 저해요인인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의 인프라(Infra) 구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지역경제 현황과 문제점**

○ 인구 및 산업 현황

- 관악구의 전체 인구는 530,020명이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64세 이하 노동가능 인구는 전체의 77.52%로 나타나고 있음
- 관악구의 총 면적은 29.57km<sup>2</sup>로서 서울특별시 전체의 약 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7번째로 큰 면적임
- 도시기반시설현황을 보면 총 도로연장 314.6km, 상하수도 보급률 각각 100%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시가스는 9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음

〈표 1〉 인구 및 용도지역현황

인 구				면 적 (km <sup>2</sup> )			
계	15세 미만	노동가능인구 (15~64세)	노인인구 (65세~)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530,020 (100%)	84,147 (15.88%)	410,899 (77.52%)	34,974 (6.60%)	29.57 (100%)	15.39 (52.04%)	0.44 (1.49%)	13.74 (46.47%)

〈표 2〉 도시기반시설현황

도 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도로시설	공 원
314.6km (도로율22.84%)	89,007전 (보급율 100%)	392.3km (보급율 100%)	208,452가구 (보급율 99%)	교량21,터널3, 보도·육교10	79개소 (10.76km <sup>2</sup> )

주: 도로율은 시가지 면적 중에 행정구역내 노폭 4m 이상 도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임

### ○ 관악구의 재정구조 취약성

- 관악구 구정의 기반이 되는 구 재정의 자립도(2006년 현재 36.6%의 자립도)를 보면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 20위로 매우 열악한 재정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표 3〉 관악구의 재정자립도와 순위

구별	인구수 (2005.12.31 현재)	재정자립도	순위
종로구	169,315명	77.2%	4
중 구	130,027명	74.4%	5
용산구	230,260명	53.5%	8
성동구	337,744명	40.7%	18
광진구	375,613명	44.9%	12
동대문	381,110명	41.3%	17
중랑구	427,373명	29.3%	25
성북구	462,879명	44.5%	13
강북구	353,260명	31.1%	23
도봉구	381,529명	38.5%	19
노원구	622,003명	32.0%	22
은평구	470,751명	30.4%	24
서대문	349,163명	43.6%	16
마포구	388,164명	51.7%	10
양천구	499,755명	59.7%	7
강서구	553,660명	43.9%	14
구로구	416,405명	43.9%	15
금천구	256,902명	32.9%	21
영등포	408,386명	71.2%	6
동작구	410,481명	48.2%	11
관악구	530,020명	36.6%	20
서초구	401,481명	90.4%	1
강남구	530,020명	87.2%	2
송파구	401,736명	84.2%	3
강동구	540,909명	53.1%	9

- 이러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특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거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생활환경개선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자치구보다 열악한 환경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확충을 위한 제반 시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관악구의 산업구조 취약성

- 관악구의 지역경제기반인 관할구역의 사업체 27,399개 중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유통서비스업종과 숙박 및 음식점 업종 등 위락서비스 업종이 전체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들 기업체의 95%가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산업구조의 취약성은 궁극적으로 생산액의 감소와 부가가치 창출이 낮아 지역경제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될 수 있는 생산자시설의 분포가 낮아 관악구의 재정수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시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악구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 사업체현황

(%)

업종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	운수업	통신업	금융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기타
	27,399 (100)	1,784 (6.5)	820 (3.0)	5,974 (21.8)	5,872 (21.4)	4,265 (15.6)	75 (0.3)	194 (0.7)	1,387 (5.1)	6,278 (22.9)	750 (2.7)

종업원수	10인 미만	10인 이상	50인 이상	100인 이상	300인 이상	500인 이상	1,000인 이상
	26,144 (95.43)	1,085 (3.95)	118 (0.43)	42 (0.15)	6 (0.02)	2 (0.01)	2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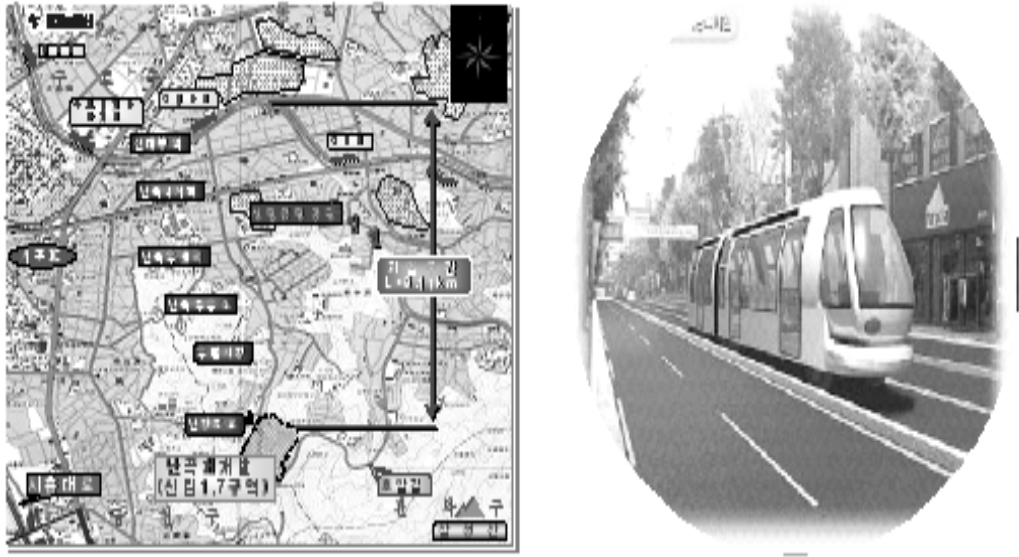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

### ○ 주거환경 개선

- 관악구는 지형적으로 고지대와 구릉지가 많으며 1960년대 초 정부의 이주정책으로 급격히 형성되다 보니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관악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주변지역과 균형을 유지하여 친환경 도시공간 창출과 쾌적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신림 2,6,9,10동 일대 부지면적 537,100㎡에 신림 뉴타운 건설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신림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후 지난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인정 고시되었으며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 제정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비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이끌어 내어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의 지정을 위한 방침을 정하고 지난 10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차질 없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서울시에 신청할 예정임
- 아울러 현재 관악구의 상업지역은 구 전체 면적의 1.49%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이면도로까지 여관이나 유흥음식점, 주점 등 유흥 업종이 밀집되어 있어 생산기반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 이는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주요 역세권과 남부순환로 주변 상업지역이 상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 난곡 신교통(GRT) 건설

- 2006년 휴먼시아가 입주한 신림7동 난곡지역에 서울시 최초의 최첨단 신교통수단 GRT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막힘없는 교통체계를 마련할 예정임
- 사업구간은 난곡 재개발지역에서 신대방역까지 연장 3.1km, 6차로이며, 사업비는 2,538억원(공사비 428억원, 보상비 2,090억원, 감리비 등 20억원)이 소요됨
- 현재까지 진척사항으로는 지적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 도로편입구간에 대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추진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보상협의를 착수하여 차질 없도록 진행하게 됨



<그림 1> 노선도

- 이렇게 해서 난곡 신교통수단을 건설하게 되면 여러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음
- 우선 전용차로 운행으로 시간 단축과 친환경적인 차량을 운행함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게 되며, 나아가 난곡지역 개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 도림천 복원사업

- 관악구의 도림천은 관악산을 발원지로 안양천에 합류되는 한강의 제2지류로서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지천이지만 비가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천이라는 특징을 지님
- 더욱이 늘어나는 차량과 교통정책에 밀려 구간별로 완전복개 내지 부분 복개되어 있어 그나마 남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으며, 하천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피복되어 있음
- 관악산에서 시작되는 도림천은 폭 20~90m로 안양천까지 11km에 이르며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를 거쳐 지나가며, 이중 관악구 부분은 6.7km임
- 이에 관악구는 관악산과 더불어 도림천을 복원 또는 개량을 통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자연하천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함
- 현재 아스팔트와 시멘트가 전부인 도림천을 사계절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헤엄치며,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놀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겠다는 것임

- 우선 구는 서울대 정문 앞 완전복개구간에 대하여 완전 철거(527m)를 계획하고 있으며, 철거로 인하여 교량 2개소가 신설됨
- 또 하천변으로는 조경시설과 더불어 산책로 겸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운동공간으로 제공됨
- 더욱이 사계절 건천인 도림천의 특성상 우수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여러 대책들이 추진됨. 먼저 단기대책으로 수위 유지시설보가 설치되고 저협수로가 조성될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는 관악산주차장 저류조 설치(30,000톤), 강남순환고속도로 터널 지하수 활용, 한강 하천수 도수 등을 통해 도림천 수량을 최대 확보됨
- 구는 이렇게 해서 도림천이 자연하천으로 복원될시 여러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음
- 우선 관악산과 도림천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구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더욱이 관악산은 연간 60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휴식처이자 명산으로 관악구를 넘어 서울시민에게 색다른 관광 명소이자 쉼터를 제공하며, 연구원, 교환교수 등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한 서울대학교 또한 관악산 자락에 있어 수도 서울의 이미지 개선효과에도 큰 몫을 할 것이 확실시 됨
- 아울러 도림천을 통해 깨끗한 물을 지속 공급하게 되면, 하천의 자연치유력 증대로 연결된 안양천과 한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에도 크게 기여하고 치수안전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림 2〉 도림천 복원사업 전과 후



### ○ 영어마을 조성

- 영어마을은 영어권 국가의 생활을 체험하는 상설체험시설로서 관악구는 서울시의 제3영어마을을 유치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고 있음
- 서울에는 ‘풍납 제1영어마을’, ‘수유 제2영어마을’ 이 있으며, 관악구가 선정될 시 ‘제3 영어마을’ 이 됨
- 관악구가 영어마을 후보지로 서울시에 추천한 곳은 봉천7동 산 53-1번지 외 20필지로서 서울대 후문지역의 서울사대 부설중고교 건립 예정지와 연접해 있으며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 총 면적은 50,000m<sup>2</sup>(15,150평)임
- 특히 관악구 후보지역은 한강 이남의 교통요충지로서 타구에 비해 경제성, 접근성, 효과성, 쾌적성 등 입지타당성 면에서 최적의 후보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미 관악구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와 과학문화 도시’ 로 지정되어 교육 환경의 질이 높여 가고 있으며, 여기에 영어 마을 인근지역에 국제 도시 간 다양한 문화, 교육, 과학 등에 걸친 정보교류와 생산적 토의를 기능케 할 국제청소년센터를 건립하여 새로운 교육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힘

### ○ 지역경제 활력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와 벤처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구 전체면적의 1.5%에 불과한 상업지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
- 먼저 우리구가 보유한 잠재력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의 고급두뇌를 활용한 「관악벤처타운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 따라서 서울대벤처타운, 자티전자 등 3곳을 서울시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받게 하였고, 신림8동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벤처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벤처기업들의 편의를 위하여 벤처집적시설 입주 보증금을 금융권에 알선하고, 구 홈페이지에 벤처기업 입지정보방을 개설하여 사이버 중개업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금리를 연 4%로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또한 우리 구에서는 93년부터 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통한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림 3〉 신림1동 시장 환경개선사업 전과 후

- 매년 20억 원 정도를 년 2회 신청접수 받아 기업체에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159개 업체 14,587백만 원이며, 올해에도 8개 업체 1,088백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음
- 앞으로도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연리 4%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의 유리한 조건으로 최고 2억원까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겠으며, 내년도에도 31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그리고 2005년도에는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3개국 유럽시장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1,259만 불의 가계 약실적을 기록하였음
-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신림1동 시장에 이어서 지난달 9월 25일 준공식을 개최한 신림4동 시장환경개선사업은 아케이트 공사 2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장 일일 이용객이 사업 전보다 20~30%이상 증가한 4,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침체되었던 시장이 웃음과 활력이 넘치고 있음
- 향후에는 시장주변의 도림천에 구름다리 인도교 설치와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편리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그림 4〉 신림4동 시장 환경개선사업 전과 후

- 내년에는 봉천11동 원당골목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아케이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재건축 공사 중인 봉천4동 소재 청룡시장은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봉천3동 소재 봉천신시장 재개발 사업은 금년 6월에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중에 있으며, 신림8동 소재 중앙시장과 신림9동 소재 동방시장은 사업시행 인가 준비 중에 있음
- 또한, 봉천1동 소재 당곡시장은 사업시행구역 선정 준비 중이며, 봉천본동 소재 봉천 현대시장은 사업구역선정 추천 신청을 위해 준비 중에 있는 등 재래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
- 나머지 재래시장들에 대한 시설개선과 경영현대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지역상권의 부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향후 발전방향

- 관악구의 공간적 구심점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확대를 통해 용적율을 상승시켜 고층빌딩의 입지여건을 마련하여 권역별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개발 방안이 요구됨
- 또한 전체 27,399개 사업체 중 87% 이상이 1~4인 이하의 사업체로 산업구조기반 자체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산업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부순환로를 중심으로 용도지역 확대 및 상향조정을 통해 경제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업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계획의 집행과 관리방안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경영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정보를 수시로 진단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적 접근 노력이 필요함

## 참고문헌

- 관악구, 「관악통계연보」 2005
- 관악구, 「관악구종합발전5개년계획」 2002.10.30